

다문화 청소년의 다문화가족정책 참여 여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성취동기 변화 유형에 따른 차이

남예지* · 김유정** · 홍세희***

I 알기 쉬운 개요

한국의 다문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국내 다문화 청소년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이들은 교육 취약계층에 속해있다. 이러한 현실과 달리 다문화 청소년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미래를 함께 이끌어 갈 잠재 구성원으로서 이들의 성장 과정에 대해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다문화 청소년은 여러 여건상 자존감 하락, 우울감 등 부정적 감정 노출에 취약하다.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족정책이 실시되었으나, 여러 부분에서 개선할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해당 정책의 구체적인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자 다문화가족정책 참여 여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삶의 만족도의 선행변수로 알려진 성취동기의 변화 유형을 함께 살펴보았다. 성취동기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양상이 다문화가족정책 참여 여부에 받는 영향, 삶의 만족도에 주는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향후 다문화가족정책의 방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제1저자, nyeji1018@naver.com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제2저자, 32amy@naver.com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교신저자, seheehong@korea.ac.kr

투 고 일 / 2024. 3. 11.

심 사 일 / 2024. 5. 3.

심사완료일 / 2024. 5. 10.

I 초록

국내 다문화 청소년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킬 방안을 탐색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성취동기가 있으며, 성취동기는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으로 연구된 바가 있다. 이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취동기의 변화를 유형화하고자 하였다. 이때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문화가족정책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성취동기 변화 유형이 매개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 변화 유형은 '고수준 상향', '중수준 유지', '저수준 하향'의 세 가지로 나타났다. '중수준 유지' 집단 비중이 70%를 넘어, 과반수의 다문화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중간 정도의 성취동기를 유지하였다. 둘째,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 변화 유형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다문화가족정책은 '한국어 교육 지원', '급식비 지원', '기타'로 나타났다. '한국어 교육 지원'과 '기타'는 성취동기가 높은 집단에 속할 확률을, '급식비 지원'은 성취동기가 낮은 집단에 속할 확률을 높였다. 셋째, 다문화가족정책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성취동기 변화 유형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달라지는지 확인한 결과,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넷째, 성취동기 변화 유형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문화가족정책은 '방과 후 수업료 지원'이 유일하였다. 방과 후 수업료 지원을 제외한 13개의 다문화가족정책은 성취동기 변화 유형의 영향을 통제하였을 때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다문화 청소년, 다문화가족정책, 성취동기, 삶의 만족도, 성장혼합모형, 매개모형

I. 서 론

현재 한국은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넘어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인의 국제결혼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 가구 수는 크게 확대되는 추세다. 자연스럽게 다문화 청소년 수도 2013년 5만 6천 명에서 2022년 16만 8천 명으로 10년간 약 3배 이상 증가하였고(여성가족부, 2023), 저출생 현상으로 한국인 청소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국내 다문화 청소년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 내에서 다문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에게도 한국 사람과 동일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여성가족부, 2023).

하지만 다문화 청소년은 여전히 교육 취약계층에 속한다. 전체 청소년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이 2018년 67.6%에서 2021년 71.5%로 상향된 것과 달리 다문화 청소년의 취학률은 49.6%에서 40.5%로 오히려 9.1%p가 떨어졌다(여성가족부, 2022). 학업중단률도 다문화 청소년이 더 높았으며, 특히 중학교에서 전체 청소년과의 학업중단률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교육부, 2019). 교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문화 청소년 중 자존감 하락을 느끼거나(여성가족부, 2022) 우울감을 호소하는 경우(조선일보, 2023)가 빈번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기에는 인지적, 생물학적, 사회적 성숙과정을 거치며 큰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 시기에 겪는 심리적 문제는 이후의 삶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의 다문화 사회화가 빨라짐에 따라 향후 사회로 진출할 다문화 청소년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문화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은 더 이상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들이 한국의 미래를 함께 이끌어갈 구성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다문화 청소년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 전반에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

다문화 청소년의 교육 문제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이들의 안정적인 한국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기반으로 2010년부터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문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 기초학력 제고를 위한 기초학습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정책이 시행되었다. 해당 정책들은 다문화 청소년의 한국 생활을 돕는 데에 상당 부분 기여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김유경, 김미숙, 임원선, 조성호, 박신아, 2016). 궁극적으로 다문화 가족정책은 다문화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사회통합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이은채, 2022), 다문화가족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참여를 통해서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지 살피는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

한편, 삶의 만족도를 포함하여 다문화 청소년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내적 기제로 성취

동기가 자주 다루어져 왔다(이진선, 강영숙, 오종철, 2021). 성취동기는 스스로 노력하여 높은 수준의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욕구(Murray, 1938)로, 과제해결능력, 학업성취도, 학교적응능력 등 학교에서의 생활과 관련된 변인에 대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김민선, 2019). 본인이 가진 능력이나 자원이 부족하더라도 높은 성취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꾸준한 노력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유승희, 최충, 2020). 즉, 성취동기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신의 잠재력을 펼치도록 하는 핵심 기제이며, 따라서 청소년의 성장 및 발달에 중요하다(유승희, 최충, 2020). 특히나 다문화 청소년에게는 삶의 만족도 향상에 유의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박동진, 김송미, 2020)가 있으므로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살펴봄에 있어서 성취동기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가 인지적, 정서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는 시기인 만큼 성취동기 또한 청소년의 성장에 따라 변한다(유승희, 최충, 2020). 따라서 청소년기의 성취동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 삶의 만족도 또한 달라질 수 있다. 학습, 문화 적응 등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청소년에게 성취동기는 특히나 이들의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를 종단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횡단적인 관점을 취했으며(권성연, 천지은, 2023; 박동진, 김송미, 2020), 종단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일부 사례는 개인 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전체적인 양상만 탐색한 것에 그쳤다(김민선, 2019; 이진선 외, 2021). 또한 다문화가족정책에 개선할 부분이 여전히 많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다문화가족정책이 성취동기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이진선 외(2021)의 연구가 유일했다. 하지만 해당 연구는 정책의 지원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로만 단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어떤 효과를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 변화궤적을 유형화하고자 한다. 이때 다문화가족정책이 삶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성취동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진선 외, 2021)을 고려하여, 다문화가족정책의 세부 정책들이 성취동기의 변화양상에 미치는 영향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본 연구가 다문화 청소년이 미래의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정착하는 데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 변화

성취동기는 인간의 내면을 구성하는 동기 체계의 하나로, 어렵고 도전적인 일을 해내려는 욕망을 의미한다(Murray, 1938). 청소년의 성취동기는 어떠한 목표를 성취하도록 하는 강한 원동력이므로 성취동기가 높은 청소년은 도전 가치가 충분한 과업을 마주했을 때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다(박동진, 김송미, 2020). 따라서 성취동기가 높은 청소년은 능률이 높고 그 결과 또한 우수한 경우가 많으며, 이처럼 성취동기 수준과 성취도는 명확한 상관관계를 가진다(권미경, 이소연, 2017). 다문화 청소년에게 성취동기는 특히 중요한 내적 변인이다. 불리한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성취동기가 높으면 꾸준한 노력으로 본인이 속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유승희, 최충, 2020). 아직까지 많은 다문화 청소년이 편견과 차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한수연, 양미석, 박용한, 2020),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지만, 이들이 스스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것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취동기가 높은 다문화 청소년은 자신이 마주한 난관을 잘 극복하고,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유승희, 최충, 2020).

한편, 청소년기에 인지적, 정서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음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양상을 보인다(유승희, 최충, 2020). 성취동기의 변화는 성취동기와 기본적인 개념은 같지만, 종단적인 양상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구분되는 개념이다.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 변화양상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성취동기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이진선 외, 2021; 한수연 외, 2020). 이는 개인이 성장하면서 설정하는 목표가 뚜렷해지고,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의지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한수연 외, 2020). 해당 연구들은 성취동기의 종단적 양상을 연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제한된 시점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성취동기의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모형으로 구축하여 집단 내 이질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여 연은모와 최은식(2020)은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 변화 유형을 잠재집단으로 분류하여 표본의 약 85%가 성취동기가 높아지는 집단에 속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연구 또한 개인 간 분산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요 변수 중 하나인 성취동기에 대해 집단 내 이질성과 개인 간 분산을 고려하여 시간에 따른 변화양상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성취동기에 따른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스러운 정도를 스스로 평가한 것을 말하며, 정서적 행복을 포괄하는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을 의미한다(김영민, 임영식, 2013).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OECD 가입국 22개 중 최하위권에 속할 정도로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염유식, 성기호,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그보다 더욱 낮다는 것이 밝혀진 바가 있다(이상은, 최나야, 2021).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방안에 대한 탐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삶의 만족도는 높은 성취동기의 영향을 받아 증진될 수 있다(박동진, 김송미, 2020). 높은 성취동기는 특정 과업에 대한 성취 자체를 넘어 미래에 얻을 만족감을 기대하면서 더욱 열중하고 노력하도록 한다(김아영, 조영미, 2001). 이러한 이유로 의미 있는 포부를 가지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행복과 안녕감을 높일 수 있다(고영남, 2017). 다시 말해 성취동기는 행복한 미래를 영위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기반으로 하므로,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박동진, 김송미, 2020). 특히 청소년기는 정체감을 형성해나가는 시기임을 고려하면, 청소년기의 삶의 만족도는 이후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는 이들의 삶의 만족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는 전반적인 삶의 영역에서 긍정적 태도를 가지는 동기로 작용하여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연구되었다(이래혁, 이재경, 2021). 이진선 외(2021)의 연구에서는 우울과 위축이 부정적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성취동기를 통해 삶의 만족도가 증진된다고 제시하였다. 반면, 성취동기의 부정적 영향을 제시한 연구도 일부 있었다. 권성연과 신소영(2022)은 성취동기가 높은 경우 높은 수준의 과제를 추구함으로써 자신의 성취가 주관적 기준에 비해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고, 지나치게 높은 성취동기는 압박이나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일반적으로는 성취동기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처럼 상반된 결과를 제시한 연구도 부분적으로 있으므로 두 변인의 관계를 면밀하게 재분석할 필요가 있다.

3. 다문화가족정책의 효과

다문화가족정책은 다문화 사회에서의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수행되는 정책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결혼 이민자 및 그의 가족에 대한 지원 토대를 구축하는 정책이다

(김유경 외, 2016). 다문화 청소년에게 지원되는 정책의 내용은 ‘방과 후 수업료 지원’, ‘문화 공연관람’, ‘심리적응 프로그램’ 등 15가지 항목이다(이진선 외, 2021). 이와 같은 정책은 다문화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프로그램과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 및 제공되고 있다(이진선 외, 2021).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한국어 교육 지원’과 같은 정책은 다문화 청소년의 언어 및 학업능력을 향상시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돕는다(김미예, 임지영, 2012; 이진선 외, 2021). 이와 같이 학업과 관련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외국인 부모의 언어적 장벽으로 인한 자녀 학습 지도 불충분 문제 등을 완화시킨다(정진우, 2014). ‘심리적응 프로그램’은 주위의 차별과 놀림으로 인한 사회적 위축 및 우울을 겪고 있는 경우 혹은 언어와 문화 차이 등으로 정체성 혼란을 겪는 경우 등, 다문화 청소년이 직면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이진선 외, 2021).

이처럼 다문화가족정책은 다문화 청소년의 성장 및 발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지만, 정책의 장기화되며 간혹 예상치 못한 역효과가 일부 나타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다문화가족정책 지원을 받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질 경우 그 주변인들로 하여금 다문화 청소년을 소수자, 취약계층으로 더욱 강하게 인식하게끔 하는 낙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김혜영, 2014). 실제로 다문화가족정책의 지속적 지원을 받는 청소년은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무의미해지는 것으로 분석된 바가 있어(이진선 외, 2021),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즉, 다문화가족정책이 다문화 청소년에게 가져오는 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위해 다문화가족정책이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정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 변화 유형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연구문제2. 성취동기 변화 유형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3. 다문화가족정책 참여 경험이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 변화 유형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I. 연구방법

1. 분석 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MAPS) 1기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MAPS 1기는 2011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 청소년 1,635명과 학부모 1,625명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총 10년에 걸쳐 매년 조사되어 구축된 자료이다. 해당 자료는 국제결혼가정자녀, 중도입국 청소년, 외국인자녀 등을 모두 다문화 청소년으로 정의하여 이들의 가정배경 특성, 신체적 발달, 부모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개인생활 영역부터 심리적 사회적응, 학교생활, 정책 수혜 경험 등과 같은 사회생활 영역까지 다각적인 설문으로 구성되어있다.

이처럼 MAPS 1기는 동일한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심리적 발달 상태와 다문화 가족정책 참여 여부 등과 관련된 요인에 대해 추적 관찰하여 종단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의 다문화가족정책 참여 경험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성취동기의 변화 유형을 살펴보고자 함에 적합하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정책 참여 관련 문항이 제2차(2012년) 조사부터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2차(2012년)부터 제10차(2020년)까지 총 9개년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최종 분석대상은 제2차(2012년) 조사에 참여한 1,365명 중 관련 문항에 모두 응답한 1,034명이다.

2.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활용한 측정 도구의 상세 문항 내용은 표 1과 같다. 먼저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이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하므로, 다문화 청소년이 성인이 되기 이전, 즉, 고등학교 졸업 이전의 자료를 모두 분석하였다. 목표하는 바에 대한 평소 생각을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묻는 8개 문항의 평균값으로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취동기가 높다고 해석하였다. 제2차(2012년)부터 제9차(2019년)까지 동일한 내용으로 측정되었으며, 모든 시점에서 크론바흐 알파(Cronbach α) 신뢰도는 .87~.89로 양호하였다.

삶의 만족도의 경우 청소년 때의 성취동기 변화 양상과 다문화가족정책 참여 경험이 다문화 청소년이 훗날 성인이 됐을 때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삶의 만족도는 이들이 성인이 된 시점 때 측정된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제10차(2020년) 자료 중 스스로 생각하기에 행복한 정도가 어떠한지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

까지의 4점 척도를 묻는 3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성취동기와 마찬가지로 평균값을 계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삶에 만족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크론바흐 알파 신뢰도는 .80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정책 참여 경험은 학교나 기타 기관에서 다문화가족으로 지원받은 정책이 있을 시 ‘있음’(1점), 없을 시 ‘없음’(2점)으로 응답하도록 요구한 14개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각각 1점과 0점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같은 사람이 여러 정책에 참여한 경우 각 정책 참여 대상에 모두 포함되었다. 결과를 보다 다각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정책의 성격에 따라 교육 서비스 지원, 물질 지원, 문화 활동 지원, 기타 지원으로 구분하였다.

표 1
측정 도구의 문항 내용

변수	문항 내용		척도
성취동기	나는 내가 세운 학습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잘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		
	나는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한다		
	나는 나 스스로 학습목표를 결정한다		
	나는 스스로 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좋아한다		
	내가 관심있는 일을 시도하는 것을 즐긴다		
	나는 내 자신이 만족할 때까지 노력한다		
	나는 가족이나 주위사람의 기대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추진한다		
삶의 만족도	나는 사는 게 즐겁다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다문화 가족정책 참여 경험	교육 서비스 지원	특기적성 프로그램(체육, 음악, 미술 등)	0: 없음 1: 있음
		심리적응 프로그램(상담, 심리치료,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등)	
		대학생 멘토링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이중언어교실	
		한국어 교육 지원	
		학습지 지원	
	물질 지원	방과 후 수업료 지원(바우처 등)	
		물적지원(책, 학용품 등)	
		급식비 지원	
	문화 활동 지원	문화공연관람(뮤지컬, 연극, 영화, 음악회 등)	
		놀이공원 방문	
		문화체험활동(박물관, 역사탐방, 답사여행, 한국문화체험, 농촌체험 등)	
	기타	기타	

주: 1) 성취동기는 제2차(2012년)부터 제9차(2019년)까지 총 8개년, 삶의 만족도는 제10차(2020년), 다문화가족정책 참여 경험은 제2차(2012년) 자료 기준

2) 다문화가족정책 참여 경험 자체가 없는 경우는 모든 정책에 대해 ‘없음’(2점)으로 입력됨

한편,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 변화 유형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다문화가족정책 참여 경험의 영향력을 보다 정확히 살펴보기 위해, 성별과 연령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성별에 따라 성취동기가 달라짐을 직접적으로 보인 연구는 적었으나(조수빈, 진재찬, 유서구, 2023), 학업성적(이형하, 2021), 진로결정성(이래혁, 이재경, 2021) 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인 연구는 있었다. 이를 고려하면 성취동기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또한 성별에 따라 다를 가능성이 있다. 다문화 청소년 중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음을 보인 연구(박혜숙, 양상희, 2017)도 있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성별이 성취동기와 삶의 만족도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동일 학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가족 이주 등의 문제로 연령이 다른 경우가 존재했다. 이때 연령에 따라 성취동기(문주희, 백지숙, 2012)와 삶의 만족도(박혜숙, 양상희, 2017)가 다를 수 있으므로 연령 또한 성취동기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별과 연령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 변화 유형을 확인하기 위해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을 활용하였다. 이때 성취동기 변화 유형이 다문화가족정책 참여 경험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지 규명하기 위해 성장혼합모형을 매개모형 형태로 확장하여 적용하였다.

성장혼합모형은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과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을 결합한 모형으로, 개인별 변화궤적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잠재집단을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Muthén & Muthén, 2000). 기본적으로 성장혼합모형은 절편(intercept)부터 고차함수(higher-order function)까지 여러 개의 변화율로 구성될 수 있으며, 수식은 아래와 같다.

$$\begin{aligned}
 y_{ij}^k &= \eta_{0i}^k + \eta_{1i}^k t_j + \cdots + \eta_{fi}^k t_j^2 + \epsilon_{ij}^k \\
 \eta_{0i}^k &= \gamma_{00}^k + \zeta_{0i}^k \\
 \eta_{1i}^k &= \gamma_{10}^k + \zeta_{1i}^k \\
 &\vdots \\
 \eta_{fi}^k &= \gamma_{f0}^k + \zeta_{fi}^k
 \end{aligned}$$

y_{ij}^k 는 $k(k=1, 2, \dots, K)$ 번째 잠재집단에 속하는 개인 i 의 j 시점 성취동기이다. η_{fi}^k 는 $f(f=0, 1, \dots, F)$ 차 함수로 구성된 k 번째 잠재집단의 변화율이다. 따라서 예를 들어 η_{0i}^k 과 η_{1i}^k 는 각각 k 번째 잠재집단의 초기치와 1차 변화율을 의미한다. γ_{f0}^k 는 k 번째 잠재집단의 f 차

변화율의 평균을, ζ_{fi}^k 는 f 차 변화율의 집단 내 분산을 나타낸다. ϵ_{ij}^k 은 오차를 의미한다.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 잠재집단 수는 정보지수, 분류의 질, 모형 비교 검증, 잠재집단 소속 비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정보지수는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Akaike, 1974), BIC(Baysian Information Criterion)(Schwarz, 1978), SABIC(Sample-size Adjusted BIC)(Sclove, 1987)를 이용하였으며, 식은 아래와 같다.

$$\begin{aligned} AIC &= -2\ln(L) + 2p \\ BIC &= -2\ln(L) + p[\ln(N)] \\ SABIC &= -2\ln(L) + p\ln[(N+2)/24] \end{aligned}$$

위의 식에서 $\ln(L)$ 은 로그 우도값, p 는 추정 모수의 수, N 은 표본의 크기를 뜻하며, 동일한 자료일 때 정보지수가 낮을수록 설명력이 좋다고 해석한다. 분류의 질은 Entropy로 판단하였다. Entropy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분류의 질이 좋은 것으로 해석하는데 일반적으로 0.7 이상이면 양호한 분류로 볼 수 있다(Muthén, 2004). 모형 비교 검증에는 LMR-LRT(Lo-Mendell 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Lo, Mendell & Rubin, 2001)와 BLRT(parametric Bootstrapped Likelihood Ratio Test)(Peel & McLachlan, 2000)를 사용하였다. LMR-LRT와 BLRT는 잠재집단이 $k-1$ 개인 모형과 k 개인 모형을 비교하여 유의확률이 유의하면 잠재집단이 k 개인 모형을, 유의하지 않으면 $k-1$ 개인 모형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전체 표본의 5% 미만인 집단은 우연히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 집단 비율이 5%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Berlin, Williams & Parra, 2014)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잠재집단 수를 결정한 이후에는 3-step 접근법을 통해 영향요인과 결과변인을 검증하였다(Vermunt, 2010). 3-step 접근법은 기존의 1-step 접근법보다 추정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Asparouhov & Muthén, 2014).

이상의 분석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제2차(2012년) 조사부터 다문화가족정책 참여 문항이 포함됨을 고려하여 첫 번째 성취동기 시점을 제2차(2012년)로 설정하였다. 이때 성취동기 변화 유형 잠재집단에서 삶의 만족도로 향하는 경로와 다문화가족정책 참여 경험에서 삶의 만족도로 향하는 경로는 서로를 통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매개와 달리 잠재집단을 매개변수로 취하는 모형이므로, 독립변수(성장혼합모형의 영향요인)에서 매개변수로 향하는 경로와 매개변수에서 종속변수(성장혼합모형의 결과변인)로 향하는 경로는 하나의 수치로 계산되지 않는다. 다문화가족정책 참여 경험이 성취동기 변화 잠재집단에 미치는 영향은 다항(multinomial)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 회귀분석으로 수행되었으며, 성취동기 변화 유형 잠재

집단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차이는 차이검증을 통해 분석되었다. 그림 1은 변수 간의 영향력을 고려한 모형이므로 다문화가족정책 참여 경험과 성취동기 변화 유형 잠재집단의 영향력은 모두 한 번에 분석되었다. 초기치와 1차 및 2차 변화율은 잠재변수이므로 모두 원으로 나타내었다. 이때 첫 번째 시점인 제2차(2012년) 성취동기부터 여덟 번째 시점인 제9차(2019년) 성취동기에 대한 변화율의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은 각 변화율의 차수에 따라 고정되었다. 시각적 편의를 위해 측정변수의 오차항은 생략하였다. 성별과 연령은 통제변수임을 나타내기 위해 성취동기 변화 유형 잠재집단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모두 점선 표시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위한 데이터 전처리와 기술통계 분석에는 SPSS 26.0을, 매개모형을 적용한 성장혼합모형 분석에는 Mplus 8.3을 사용하였으며, 모형 내 모수는 MLR(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with robust standard errors)을 바탕으로 추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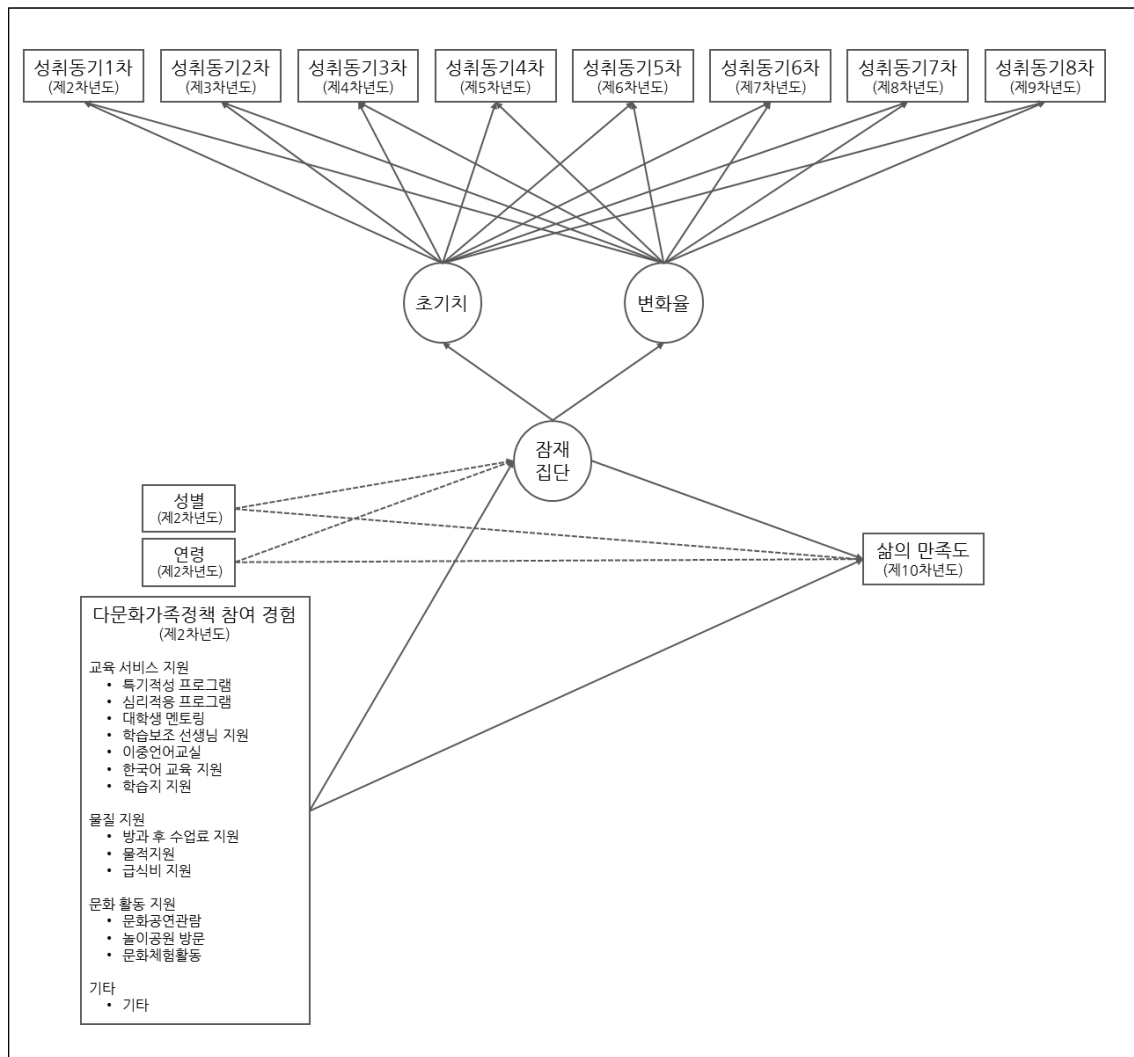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활용한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는 표 2와 같다.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는 기술통계 상으로는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평균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는 평균 2.89로 ‘그런 편이다’(3점)에 가깝게 형성되었다. 다문화가족정책의 경우, 다문화 청소년의 한 명당 참여한 정책 개수는 평균 1.65, 표준편차 1.73으로 나타났다. 그중 모든 정책에 대해 참여 경험이 없는 경우는 1,034명 중 303명으로 약 29.3%의 비중을, 한 개 혹은 두 개의 정책에 참여한 경우는 473명으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다문화 가족정책 참여 경험이 있는 다문화 청소년이 가장 많이 참여한 정책은 ‘문화체험활동’으로, 가장 적게 참여한 정책은 ‘한국어 교육 지원’으로 나타났다.

표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변수	빈도(%)	평균(표준편차)
제2차 성취동기(2012년)		2.93(0.49)
제3차 성취동기(2013년)		3.00(0.48)
제4차 성취동기(2014년)		3.02(0.47)
제5차 성취동기(2015년)		3.03(0.45)
제6차 성취동기(2016년)		2.06(0.46)
제7차 성취동기(2017년)		3.03(0.44)
제8차 성취동기(2018년)		3.04(0.45)
제9차 성취동기(2019년)		3.09(0.45)
삶의 만족도		2.89(0.59)
다문화가족정책 참여 경험 (1=경험 있음)		
특기적성 프로그램	91(8.80)	
심리적응 프로그램	35(3.38)	
대학생 멘토링	218(21.08)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37(3.58)	
이중언어교실	22(2.13)	
한국어 교육 지원	15(1.45)	
학습지 지원	69(6.67)	
방과 후 수업료 지원	274(26.50)	
물적지원	102(9.86)	
급식비 지원	103(9.96)	
문화공연관람	228(22.05)	
놀이공원 방문	174(16.83)	
문화체험활동	313(30.3)	
기타	29(2.80)	

주: 다문화가족정책 참여 경험은 제2차(2012년), 삶의 만족도는 제10차(2020년) 자료 기준

한편 통제변수 중 성별의 경우, 남자가 534명(51.64%), 여자가 500명(48.36%)으로 최종 분석 대상에 남자 다문화 청소년이 여자보다 많이 포함되었다. 연령은 제2차(2012년) 기준 평균 10.96세로 나타났으며, 최종 분석 대상은 10세 78명(7.54%), 11세 922명(89.17%), 12세 31명(3.00%), 13세 3명(0.29%)으로 구성되었다.

2. 성취동기 변화양상에 따른 잠재집단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양상을 유형별로 분류하기 위해, 적합한 잠재집단의 수를 탐색적으로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전체 표본에 대한 무조건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비교하여,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성장혼합모형의 변화 함수가 몇 차까지 구성될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표 3과 같이 절편으로만 이루어진 모형을 기준으로 변화함수의 차수를 늘려가며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와 RMSEA(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차 변화율까지 포함한 모형일 때 CFI와 TLI가 .90 이상, RMSEA가 .05 이하(홍세희, 2000)로 가장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3차부터는 추정에 실패하였으며, 이는 시점 수 대비 추정 모수의 수가 많아졌기 때문(Jung & Wickrama, 2008)으로 보인다. 따라서 표 3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성취동기의 성장혼합모형에 2차 변화율까지 포함하였다.

표 3
성취동기 무조건 잠재성장모형의 변화함수별 모형 비교

	$\chi^2(df)$	CFI	TLI	RMSEA
무성장 모형	449.189(34)***	0.840	0.868	0.109
1차 변화율 모형	147.897(31)***	0.955	0.959	0.060
2차 변화율 모형	82.577(27)***	0.979	0.978	0.045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3차 변화율 모형부터는 추정에 실패하여 표에서 생략

초기치부터 2차 변화율까지 모든 성장요인에 대해 평균과 분산을 집단별로 자유롭게 추정하는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한 결과, 잠재집단이 2개인 모형일 때는 추정에 성공하였으나 3개인 모형부터는 음분산(non-positive variance) 문제가 발생하여 추정에 실패하였다. 성장혼합모형은 다른 혼합모형보다도 추정하는 모수의 수가 많음으로 인해 이처럼 추정에 실패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장요인의 분산을 잠재집단 간에 동일하게 제약하는 방법, 성장요인의 분산 중 0에 가깝게 추정된 분산이 있을 경우 해당 성장

요인의 분산을 0으로 고정하는 방법(Jung & Wickrama, 2008)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잠재집단별로 분산을 동일화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잠재집단 수에 따라 모형의 분산 제약 여부가 달라지면 모형 비교를 할 수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분산 동일화 제약 모형을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잠재집단별로 분산 동일화 제약을 가한 성장혼합모형을 기반으로 잠재집단 수를 늘려가며 정보지수, 모형 비교 검증, 분류의 질을 확인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잠재집단 수가 5개 이상일 때부터는 분산을 동일하게 제약했음에도 추정에 실패하여 집단 수가 4개인 모형까지 표 4에 제시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보지수에서 AIC와 SABIC는 잠재집단 수를 늘릴수록 표 4와 같이 지수 값이 하락했다. BIC는 집단 수가 3개일 때 지수 값이 가장 작았으며 4개로 늘어났을 때는 오히려 소폭 상승했다. 모형 비교 검증 중 LMR-LRT는 잠재집단 수가 3개인 모형까지는 .05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나, 4개인 모형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BLRT의 경우, 잠재집단 수와 관계없이 모든 모형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분류의 질은 모든 모형에서 0.7 이상으로 분류 수준이 양호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잠재집단의 비율을 확인한 결과, 집단 수가 2개인 모형과 4개인 모형에서는 비율이 5% 미만인 잠재집단을 포함하였으나 집단 수가 3개인 모형은 모든 집단이 5% 이상의 비율을 가져 기준을 충족하였다(Berlin et al., 2014). 따라서 본 연구는 이상의 결과와 모형의 해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 변화에 대한 최종 잠재집단 수를 3개로 결정하였다.

표 4
성취동기 변화 잠재집단 수에 따른 모형 비교

		잠재집단 수		
		2개	3개	4개
정보지수	AIC	8097.129	7966.761	7957.653
	BIC	8200.894	8090.291	8100.948
	SABIC	8134.196	8010.888	8008.840
모형 비교 검증	LMR-LRT	0.083	0.002	0.535
	BLRT	0.000	0.000	0.000
분류의 질	Entropy	0.998	0.879	0.888
잠재집단 비율(%)	집단1	99.747	20.579	20.567
	집단2	0.253	72.107	5.158
	집단3	-	7.314	71.975
	집단4	-	-	2.300

주: 잠재집단 수가 5개인 모형은 추정에 실패하여 표에서 생략

다음으로는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가 각 잠재집단별로 어떤 변화 궤적을 그리는지 자세히 살펴보았다. 잠재집단 수 3개로 결정된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 변화 유형은 그림 2와

같으며 집단별 추정 계수는 표 5에 나타내었다.

표 5

성취동기 변화 잠재집단별 계수

잠재집단	비율(%)	변화율	계수	표준오차
고수준 상향	20.6	초기치	3.163 ***	0.036
		1차 변화율	-0.027	0.020
		2차 변화율	0.016 ***	0.003
중수준 유지	72.1	초기치	2.943 ***	0.016
		1차 변화율	0.033 ***	0.008
		2차 변화율	-0.004 ***	0.001
저수준 하향	7.3	초기치	2.477 ***	0.105
		1차 변화율	0.144 **	0.044
		2차 변화율	-0.024 ***	0.006

주: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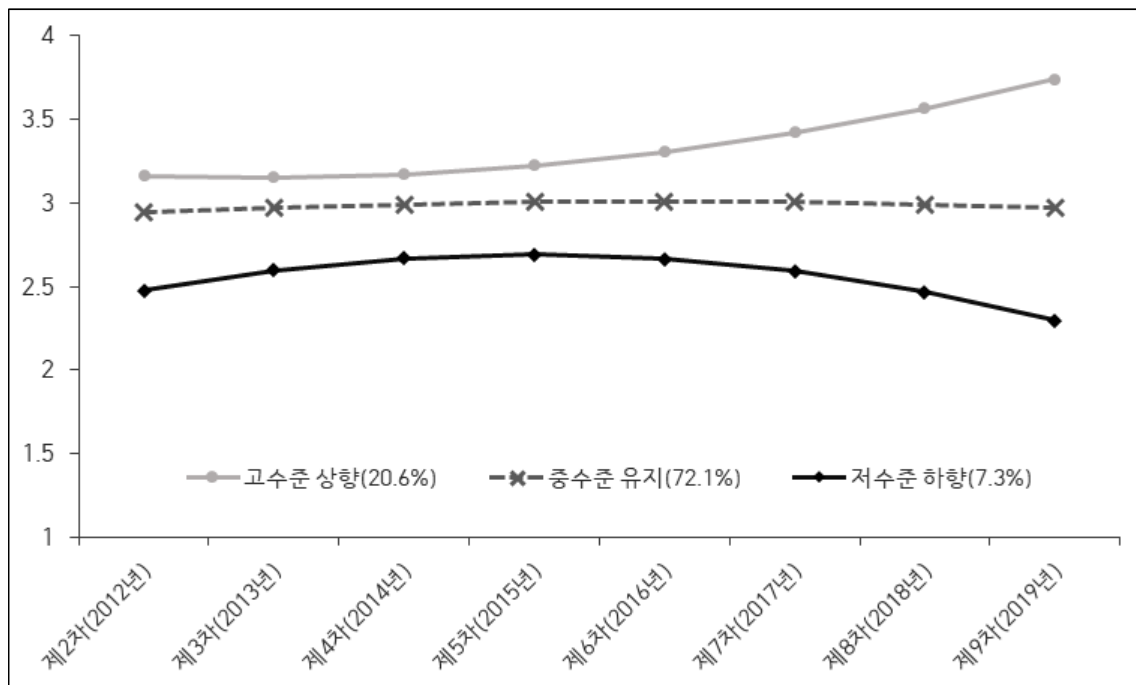


그림 2.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 변화 잠재집단

첫 번째 집단은 20.6%의 비중으로 제2차(2012년) 조사에서 성취동기가 3.163으로 높은 편이었으며, 그 수준은 제9차(2019년) 조사까지 높아지는 양상을 그려 ‘고수준 상향’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집단은 제2차(2012년) 조사 때의 성취동기가 ‘고수준 상향’보다 조금 낮은 2.943으로 나타났다. 해당 집단은 앞선 집단과 달리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이 두드

러지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중수준 유지’로 명명하였다. 집단 비중의 경우, 전체 분석 대상의 72.1%로 잠재집단 3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성취동기를 그렸다. 해당 집단의 성취동기는 제2차(2012년) 조사 기준 2.477로 나타났으며, 제5차(2015년) 조사까지 성취동기가 조금씩 올라갔으나 제9차(2019년) 조사 때 2.297로 떨어지는 변화양상을 나타냈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여 해당 집단은 ‘저수준 하향’으로 명명하였다. ‘저수준 하향’ 집단에 속하는 경우는 전체 분석 대상의 7.3%로, 다른 집단 대비 비중이 가장 작았다.

3. 성취동기 변화 유형에 따른 삶의 만족도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 변화 유형에 따라 이들이 성인이 된 이후의 삶의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검증하기 위해, 성취동기 변화 잠재집단 간의 차이검증을 수행하였다. 성취동기 변화 유형별로 추정된 삶의 만족도 회귀계수와 이에 대해 차이검정한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이때 표 6은 앞서 밝혔던 바와 같이 성별과 연령은 통제변수로 투입된 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경우 다문화가족정책 참여 경험과 성취동기 변화 유형, 삶의 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성장혼합모형을 매개모형 형태로 확장하여 적용했으므로, 삶의 만족도에 대한 다문화가족정책 참여 경험의 영향력이 고려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6
성취동기 변화 잠재집단별 삶의 만족도 회귀계수 및 차이검증

변수	잠재집단	계수	표준오차	차이검증(χ^2)	
				중수준 유지	저수준 하향
삶의 만족도	고수준 상향	1.655 **	0.585	33.090 ***	33.862 ***
	중수준 유지	1.304 *	0.582	-	6.566 *
	저수준 하향	1.079	0.608	-	-

주: * $p < .05$, ** $p < .01$, *** $p < .001$

표 6을 자세히 살펴보면, 삶의 만족도에 대한 회귀계수는 ‘고수준 상향’, ‘중수준 유지’, ‘저수준 하향’ 순으로 높았다. 즉, 다문화가족정책 참여 경험이 성취동기 변화 잠재집단별로 같다고 전제했을 때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집단은 ‘고수준 상향’으로, 가장 낮은 집단은 ‘저수준 하향’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집단 간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따라서 표 6의 결과는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가 높게 나타날수록 삶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도 정리할 수 있다.

4. 다문화가족정책 참여 경험의 영향력 검증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 변화 유형이 다문화가족정책 참여 경험에 영향을 받는지 검증하고자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성별과 연령이 통제변수로 투입되었으며, 다문화가족정책 참여 경험이 성취동기 변화 유형 분류에 미치는 영향력은 표 7에 나타내었다.

표 7

성취동기 변화 유형 분류에 대한 다문화가족정책 참여 경험의 영향력

다문화가족정책 참여 경험	준거: 저수준 하향				준거: 중수준 유지	
	고수준 상향		중수준 유지		고수준 상향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교육 서비스 지원						
특기적성 프로그램	1.074	0.681	0.615	0.665	0.459	0.322
심리적응 프로그램	0.051	1.184	-0.248	1.138	0.298	0.528
대학생 멘토링	0.377	0.511	0.157	0.498	0.220	0.221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1.764	1.032	-0.543	0.656	-1.221	0.903
이중언어교실	-1.599	1.099	-1.016	0.957	-0.583	0.672
한국어 교육 지원	17.243 ***	0.673	16.873 ***	0.000	0.370	0.673
학습지 지원	0.608	0.696	0.255	0.613	0.353	0.408
물질 지원						
방과 후 수업료 지원	-0.186	0.429	0.224	0.405	-0.411	0.221
물적지원	0.397	0.807	0.858	0.764	-0.461	0.354
급식비 지원	-1.541 **	0.590	-0.678	0.456	-0.863 *	0.438
문화 활동 지원						
문화공연관람	0.688	0.573	0.328	0.557	0.360	0.239
놀이공원 방문	-0.614	0.532	-0.542	0.505	-0.073	0.262
문화체험활동	0.734	0.546	0.727	0.536	0.006	0.207
기타						
기타	18.123 ***	0.443	17.552 ***	0.000	0.571	0.443

주: * $p<.05$, ** $p<.01$, *** $p<.001$

표 7에서 보듯이 성취동기 변화 유형 분류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 다문화가족정책은 ‘한국어 교육 지원’, ‘급식비 지원’, ‘기타’로 총 3개였다. 먼저 ‘한국어 교육 지원’은 해당 정책 경험이 있는 다문화 청소년일 때 ‘저수준 하향’ 집단보다 ‘고수준 상향’ 집단 혹은 ‘중수준 유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급식비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을 때는 ‘고수준 상향’ 집단보다 ‘중수준 유지’ 집단 혹은 ‘저수준 하향’ 집단에 속할 확률이 유의하게 올라갔다. ‘기타’ 정책 경험이 있을 경우, ‘저수준 하향’ 집단보다 ‘고수준 상향’ 집단 혹은 ‘중수준 유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컸다. 성취동기 수준이 ‘고수준 상향’, ‘중수준 유지’, ‘저수준 하향’ 순으로 높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어 지원 교육’과 ‘기타’는 성취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급식비 지원’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리된다.

한편, 다문화 청소년의 다문화가족정책 참여 경험이 이들이 성인이 된 이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앞선 결과들과 동일하게 표 8 또한 성별과 연령이 통제된 결과이다. 이와 더불어 다문화가족정책 참여 경험과 성취동기 변화 유형, 삶의 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매개모형 형태로 확장한 성장혼합모형으로 적용하였기 때문에, 표 8은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 변화 유형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의 다문화가족정책은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하게 미치는 영향이 없었다. 14개 정책 중 유일하게 유의한 효과를 보인 정책은 ‘방과 후 수업료 지원’이었으며, 해당 정책에 대한 경험이 있는 다문화 청소년일 때 삶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아졌다.

표 8
삶의 만족도에 대한 다문화가족정책 참여 경험의 영향력

다문화가족정책 참여 경험	계수	표준오차
교육 서비스 지원		
특기적성 프로그램	0.006	0.074
심리적응 프로그램	-0.158	0.097
대학생 멘토링	-0.026	0.043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0.136	0.073
이중언어교실	0.169	0.136
한국어 교육 지원	0.026	0.205
학습지 지원	0.025	0.076
물질 지원		
방과 후 수업료 지원	0.088 *	0.041
물적지원	0.091	0.061
급식비 지원	0.100	0.062
문화 활동 지원		
문화공연관람	-0.024	0.047
놀이공원 방문	-0.087	0.051
문화체험활동	0.040	0.043
기타		
기타	0.008	0.091

주: * $p < .05$, ** $p < .01$, *** $p < .001$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성장혼합모형을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 변화 유형을 분류하고, 매개모형을 통해 다문화가족정책 참여 여부, 성취동기 변화 유형, 삶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그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는 통일된 하나의 변화양상을 보이지 않고, ‘고수준 상향’, ‘중수준 유지’, ‘저수준 하향’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세 가지 유형 중에서는 ‘중수준 유지’ 집단이 72.1%로, 과반수의 다문화 청소년이 중간 정도의 성취동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 나머지 27.9%의 다문화 청소년은 성취동기 수준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변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동기는 인간의 내면을 구성하는 동기 체계의 하나이기 때문에 인지적, 정서적인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는 청소년기에는 ‘고수준 상향’ 혹은 ‘저수준 하향’ 집단처럼 성취동기 또한 변할 수 있다(유승희, 최충, 2020). 이러한 결과는 성취동기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보였던 연은모와 최효식(2020)의 연구와도 일부 일맥상통한다. 다만 해당 연구에서는 성취동기 변화를 겪는 청소년 비중이 본 연구의 결과보다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분석에 적용한 시점과 자료에 적용한 모형의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

성취동기가 변하는 27.9%를 보다 자세히 살펴본 결과, 성취동기가 점점 높아졌던 ‘고수준 상향’ 집단의 비중은 20.6%로 나타났다. ‘고수준 상향’에 속한 다문화 청소년은 첫 시점(2012년)에서 다른 두 집단의 다문화 청소년보다도 높은 성취동기를 보였다는 점과 이후에도 성취동기가 지속해서 상승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가 점점 증가함을 밝혔던 이진선 외(2021)과 한수연 외(2020)의 연구를 부분적으로 지지하였다. 반면 7.3%의 비중을 차지한 ‘저수준 하향’ 집단은 다른 두 집단 대비 성취동기가 낮게 형성되었으며 제5차(2015년)부터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때 ‘고수준 상향’과 ‘저수준 하향’ 집단 모두 고등학교 시기인 제7차(2017년)부터 제9차(2019년)까지 성취동기가 급격히 증가 혹은 감소한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고등학교는 성인이 되기 직전 시기로 초등학교나 중학교보다 대학 진학 혹은 취업 등으로 자신의 진로를 깊게 고민하게 된다. 따라서 성취동기 변화가 나타난 ‘고수준 상향’과 ‘저수준 하향’ 집단 모두 해당 시기에서 성취동기가 더욱 크게 변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 변화 유형 분류에는 ‘한국어 교육 지원’, ‘급식비 지원’, ‘기타’로 총 3개의 다문화가족정책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한국어 교육 지원’과 ‘기타’ 정책 참여 경험이 있는 학생일 때는 비교적 성취동기가 높은 집단에, 반면 ‘급식비 지원’ 정책 참여 경험이 있는 학생일 때는 성취동기가 낮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졌다. ‘한국어 교육

지원' 정책을 경험한 다문화 청소년은 15명에 그쳤지만, '저수준 하향' 집단에 속한 학생들이 한국어 교육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중요한 결과를 함의한다. 다문화가정에서 언어적 차이로 인해 자녀에게 한국어 교육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례가 빈번하다(정진우, 2014). 이와 같이 언어 장벽이 큰 경우 '한국어 교육 지원' 정책은 다문화 청소년의 언어능력과 학업능력을 길러줄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데에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김미예, 임지영, 2012). 즉, '한국어 교육 지원'은 한국어 구사력 자체를 성장시키기도 하지만 한국어 능력이 필요한 다른 과업의 수행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에게 한국어 교육은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관련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반면 '급식비 지원'은 오히려 성취동기를 떨어트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의 실효성 검토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해석된다. 다문화가족정책은 정책 수혜를 받는 것이 취약계층에 속한다는 것으로 비춰지며 주변에 낙인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부작용의 가능성도 있는데(김혜영, 2014), '급식비 지원'이 성취동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특히 본 연구가 분석한 자료의 첫 시점인 2012년에는 모든 지역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던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급식비 지원 여부가 학교, 교사, 또래친구 등에게 알려졌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는 하나의 가능성이며 특히 '급식비 지원'과 같은 경제적 지원은 부모의 직업 유무, 소득 수준, 교육 수준, 출신 국가 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급식비 지원' 정책이 성취동기를 저하시킨 이유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여러 다문화가족정책이 각각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총 14개의 정책 참여 경험을 영향요인으로 설정하였다. '급식비 지원'과 관련된 후속 연구에서는 '급식비 지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고려한 모형을 분석한다면 보다 세밀하게 '급식비 지원'의 영향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삶의 만족도에 대한 다문화가족정책의 영향을 통제된 상태에서 성취동기 변화 유형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성취동기가 높은 유형일 때 삶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아졌다. 이는 성취동기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선행연구들과 맥락을 같이한다(고영남, 2017; 박동진, 김송미, 2020). 성취동기는 특정한 과업에 대한 성취뿐 아니라 그 성취를 통해 미래에 얻을 수 있는 만족감에도 일조하므로(김아영, 조영미, 2001),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박동진, 김송미, 2020).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의 성취동기를 고취하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넷째,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성취동기 변화 유형의 영향을 통제된 상태에서 다문화가족정책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방과 후 수업료 지원'만이 삶의 만족도를 유의하

게 높이는 정책으로 나타났다. 이는 ‘방과 후 수업료 지원’이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을 돕고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고 밝힌 선행연구(김미예, 임지영, 2012; 이진선 외, 2021)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방과 후 수업료 지원’의 범위나 금액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14개의 다문화가족정책 중 ‘방과 후 수업료 지원’을 제외한 13개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삶의 만족도 향상에 있어서 나머지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보완 및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한편, 다문화가족정책 참여 경험의 비중을 확인한 결과, ‘문화공연관람’, ‘놀이공원 방문’, ‘문화체험활동’과 같은 문화 활동 지원 관련 정책의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앞선 선행연구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여가문화 활동 혹은 예체능 활동에 대한 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났던 점(이진선 외, 2021)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특히나 삶의 만족도가 경제적인 영역과 정서적인 영역을 모두 포함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서적 영역에서의 삶의 만족도는 여가문화 활동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하듯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 활동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고 본 연구의 기술통계 상으로도 문화 활동 지원 관련 정책에 참여한 다문화 청소년이 많았으나, 다문화가족정책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문화 활동 지원과 관련된 모든 정책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삶의 만족도 향상에 있어서 효과를 보이지 못한 13개 정책 중에서도 문화 활동 지원 관련 정책은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여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한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성취동기의 종단적 변화양상을 확인하여 청소년기에 겪는 내적 변화를 반영하였다. 다문화 청소년 중 과반수는 중간수준의 성취동기를 유지하지만, 성취동기의 변화를 겪는 청소년도 상당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른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 변화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둘째, 다문화가족정책, 성취동기 변화 유형과 삶의 만족도의 구조적 관계를 살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문화가족정책이 성취동기를 향상시키지만 일부 소수 정책은 그 방식에 따라 역효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과 ‘방과 후 수업료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13개의 정책의 경우 삶의 만족도 향상 효과가 발현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와 동시에 성취동기가 높은 수준에서 증가하는 다문화 청소년일 때 삶의 만족도도 높다는 것을 검증하여,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성취동기 고취가 중요함을 밝혔다. 다만, 해당 연구의 삶의 만족도는 주관적인 수준에서 측정된 지표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연구 결과를 해석할 필요는 있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가 향후 다문화가족정책 개선에 밑거름이 되어, 그들이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정착하는 데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고영남 (2017). 청소년의 생애목표와 삶의 만족의 관계: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매개효과. **한국교육학연구**, 23(4), 161-182. doi:10.29318/KER.23.4.7
- 교육부 (2019). **2019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세종: 교육기획 보장과.
- 권미경, 이소연 (2017).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어학습 동기와 학업성취에 관한 질적 연구. **새국어교육**, 110, 147-181. doi:10.15734/koed..110.201703.147
- 권성연, 신소영 (2022). 다문화 청소년의 개인 특성 변인, 학교적응, 삶의 만족도의 구조적 관계 분석. **평생교육·HRD 연구**, 18(3), 59-82. doi:10.35637/klehrd.2022.18.3.003
- 권성연, 천지은 (2023).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부모의 진로지지가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 학업적응과 진로결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30(8), 349-371. doi:10.21509/KJYS.2023.08.30.8.349
- 김미예, 임지영 (2012).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과 부모-자녀 응집성이 자아존중감 및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2(6), 879-888.
- 김민선 (2019).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다문화 청소년들의 학업적응 변화와 관련요인 분석: 한국어 능력, 성취동기, 진로장벽을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8(4), 251-271.
- 김아영, 조영미 (2001). 학업성취도에 대한 지능과 동기변인들의 상대적 예측력. **교육심리연구**, 15(4), 121-138.
- 김영민, 임영식 (2013).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잉적 양육, 자아탄력성, 학교 적응의 구조적 관계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5(2), 343-366.
- 김유경, 김미숙, 임원선, 조성호, 박신아 (2016). **2015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이행점검 연구** (연구보고서 20 16-16). 서울: 여성가족부.
- 김혜영 (2014). 다문화주의와 다문화가족정책. **여성연구**, 87, 7-43. doi:10.33949/tws.2014.87.2.001
- 문주희, 백지숙 (201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자녀관계, 또래관계, 교사관계가 학업효능감과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10(3), 39-50.
- 박동진, 김송미 (2020).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가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 **인문사회과학연구**, 21(3), 267-289. doi:10.15818/ihss.2020.21.3.267
- 박혜숙, 양상희 (2017). 한국의 다문화가정 아동의 삶에 대한 만족도 변화양상. **한국교육문제 연구**, 35(4), 95-121. doi:10.22327/kei.2017.35.4.095
- 여성가족부 (2022). **다문화가족 자녀의 43.9%가 청소년...학령기에 맞춤형 지원 필요성 커져**.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https://www.mogef.go.kr/kor/skin/doc.html?fn=3a7cc8ccb6e84535917dea2ef865e790.hwp&rs=/rsfiles/202312/>에서 2023년 12월 14일 인출.
- 여성가족부 (2023). **2023 청소년 통계**.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https://www.mogef.go.kr/kor/skin/doc.html?fn=0e1587789cd9406bb441a748051fd70a.pdf&rs=/rsfiles/202312/>에서 2023년 12월 14일 인출.
- 연은모, 최효식 (2020). 잠재계층성장모형을 적용한 다문화 가정 자녀의 성취동기 변화 유형 및 예측요인 탐색: 학업성취 수준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1(2), 404-414. doi:10.5762/KAIS.2020.21.2.404
- 염유식, 성기호 (2021). **2021년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조사결과보고서 (2021 제12차)**. 서울: 한국방정환재단.
- 유승희, 최충 (2020). 중학교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성취동기 변화궤적과 생태체계적 요인들의 관계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22(3), 101-128. doi:10.19034/KAYW.2020.22.3.04
- 이래혁, 이재경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취동기를 통한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55, 53-78. doi:10.20993/jjssw.55.3
- 이상은, 최나야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이중문화 경험의 매개효과. **가정과삶의질연구**, 39(1), 17-29.
- 이은채 (2022).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주민 삶의 질과 사회통합 관점에서. **법과 사회**, 69, 127-161.
- 이진선, 강영숙, 오종철 (2021). 다문화정책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다문화정책프로그램 경험 유무에 따른 다문화청소년들의 우울과 사회적 위축이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를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자치행정학보**, 35(4), 1-22. doi:10.18398/kjlgas.2021.35.4.1
- 이형하 (2021). 청소년 활동 참여 경험이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성취동기와 사회관계의 다중매개효과 및 성별 다집단분석 적용.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12), 559-572. doi:10.5392/JKCA.2021.21.12.559
- 정진우 (2014).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5(2), 103-116.
- 조선일보(2023. 06.28). [소외된 미래, 다문화 아이들] 은둔 청소년, 문제는 무너진 심리. <https://www.futurechosun.com/archives/77476>에서 2023년 12월 14일 인출.
- 조수빈, 진재찬, 유서구 (2023).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 사회적 지지 요인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72(2), 105-131. doi:10.24300/jkscw.2023.06.72.2.105

- 한수연, 양미석, 박용한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성 발달양상에 따른 성취 동기의 종단적 변화 탐색. *교육문화연구*, 26(3), 663-689. doi:10.24159/joec.2020.26.3.663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kaike, H. (1974). A new look at the statistical model identification. *IEEE Transactions on Automatic Control*, 19(6), 716-723. doi:10.1109/TAC.1974.1100705
- Asparouhov, T., & Muthén, B. (2014). Auxiliary variables in mixture modeling: Three-step approaches using M plu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1(3), 329-341. doi:10.1080/10705511.2014.915181
- Berlin, K. S., Williams, N. A., & Parra, G. R. (2014). An introduction to latent variable mixture modeling (part 1): Overview and cross-sectional latent class and latent profile analyses.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39(2), 174-187. doi:10.1093/jpepsy/jst084
- Jung, T., & Wickrama, K. A. S. (2008). An introduction to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ical Compass*, 2, 302-307. doi:10.1111/j.1751-9004.2007.00054.x
- Lo, Y., Mendell, N. R., & Rubin, D. B. (2001). Testing the number of components in a normal mixture. *Biometrika*, 88(3), 767-778. doi:10.1093/biomet/88.3.767
- Murray, L. (1938). *Explorations in Personality: A Clinical and Experimental Study of Fifty Men of College Ag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uthén, B. (2004). Latent variable analysis. *The Sage handbook of quantitative methodology for the social sciences*, 345(368), 106-109. doi:10.4135/9781412986311.n19
- Muthén, B., & Muthén, L. K. (2000). Integrating person-centered and variable-centered analyses: Growth mixture modeling with latent trajectory classes.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24(6), 882-891. doi:10.1111/j.1530-0277.2000.tb02070.x
- Peel, D., & McLachlan, G. J. (2000). Robust mixture modelling using the t distribution. *Statistics and computing*, 10, 339-348. doi:10.1023/A:1008981510081
- Schwarz, G. (1978). Estimating the dimension of a model. *The annals of statistics*, 6(2), 461-464. doi:10.1214/aos/1176344136

- Sclove, S. L. (1987). Application of model-selection criteria to some problems in multivariate analysis. *Psychometrika*, 52, 333-343. doi:10.1007/BF02294360
- Vermunt, J. K. (2010). Latent class modeling with covariates: Two improved three-step approaches. *Political analysis*, 18(4), 450-469. doi:10.1093/pan/mpq025

ABSTRACT

The impact of multicultural family policy on life satisfaction on multicultural adolescents in Korea: Based on types of achievement motivation change

Nam, Yeji* · Kim, Youjeong** · Hong, Sehee***

With the growing number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in Korea, finding ways to improve their life satisfaction becomes increasingly more vital. Although multicultural family policies for this group have been implemented, concerns about limitations of such policies are being steadily raised. Achievement motivation, which is a key factor in life satisfaction, changes over time; therefore this study categorized the patterns of changes in achievement motivation and analyzed whether these patterns mediate the impact of multicultural family policies on life satisfaction.

The primar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change of achievement motivation can be divided into three types: 'Upward on High Level', 'Maintenance of Middle Level', 'Downward on Low Level'. Second, 'Korean language education', 'meal expenses support' and 'other support' turned out to be very influential factors in multicultural family policies when it came to the issue of changes in the patterns of achievement motivation. Third, life satisfaction can b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level of achievement motivation. Lastly, 'support for after-school tuition' was the only multicultural family policy found to directly affect life satisfaction.

Key Words: multicultural adolescents, multicultural family policy, achievement motivation, life satisfaction, growth mixture model, mediation model

* First Author, Dep.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

** Second Author, Dep.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